

선거명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	부산광역시 남구을	
후보자명	서영교	기호		소속정당명	새누리당
공약번호: 1	공약 제목 :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Refresh 남구'				
<div>○ 재개발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div> <div><div>- 부산은 과거 사회적 혼란기에 따른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계획적 도시개발이 이뤄지지 못했으며, 타 대도시에 비해 불량주거지가 다량 산재해 있습니다.</div><div>- 남구 역시 이러한 노후불량주거지가 다수 존재하며, 이에 대한 공간구조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단계적 순환개발이 필요합니다.</div><div>- 이를 해결하고자 지자체와 건설사 주도로 재개발 정책이 시행되었는데, 시행이후 수익성이 없다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남구만해도 십여곳에 달합니다.</div><div>- 주민들은 당장 살고 있는 집이 허물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난처한 상황으로, 향후 재개발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은 빠른 사업진행을, 재개발이 이뤄지기 힘든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 지정구역을 해제하여 담보상태에 있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종결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div><div>- 무엇보다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문제로 재개발 사업 해지에 따른 각종 문제로 제대로 된 대책 강구가 어려운 바, 이에 대한 법적 해결을 위해 국토해양 전문가 및 국회 법제실, 입법조사처 등과 협의하여 법안을 완성했고, 19대 국회에서 발의하여 통과시킬 예정입니다.</div></div> <div>○ 컨테이너 불법 주차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div> <div><div>- 2년전 컨테이너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만동에 제1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완공하였으나, 해당 주차장의 주차면적이 88대에 불과하여,</div></div>					

주민불편이 적극 해소되지 못한바, 용당동 협성CY 부지에 제2화물주차장(236대)을 건립예정 중에 있어 컨테이너 불법주차 문제 해결에 보다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공약번호: 2 공약 제목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Well-being 남구’

- 감만동, 우암동 소재 주민복합센터, 도서관, 보건소 유치로 공공서비스 강화하겠습니다.
- 남구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시설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온 감만, 우암지역에 다용도 활용이 가능한 주민복합센터와 보건소를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감만, 우암 지역의 국유지, 사유지, 구유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부지를 모색중입니다.
- 특히 교통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지역은 ‘찾아가는 보건소(이동식 보건소)’를 시행하여, 골고루 혜택받는 보건의료 복지 시스템 구축할 계획입니다.
- 세부적으로 교통 불편지역 거동 불편자, 독거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정기 순회 진료와 별도의 관리를 진행하여 남구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을 대폭 확대하고자 합니다.
- 또한 인근 병원과 민간의료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체계적인 의료지원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양방, 한방 전문 의료인들의 자원봉사도 유도·지원하고자 합니다.
- 그 외에도 주민들의 취미와 여가생활을 즐길수 있는 다목적 용도의 주민복합센터, 도서관의 확대로 보다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약번호: 3 공약 제목 : 백운포 마리나로 만나는 ‘Pride 남구’

- ‘백운포 마리나, 풍요로운 남구’ 이제 곧 실현됩니다.

- 선진 해양도시의 경우, 어항, 화물, 해양관광기능이 공존하는 경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부산 남구는 화물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편입니다.
- 남구는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보유한 도시로, 해양레저스포츠를 할 수 있는 자연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 백운포 마리나는 국토해양부 ‘제1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있어 해양레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풍부한 지역입니다.
- 또한 백운포는 전국 43개 마리나 개발구역 중 유일하게 지자체(남구청) 토지 소유로,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국-시비의 유치로 주민 여러분과 구 예산에 한푼 부담주지 않고 해결할 계획입니다.
- 백운포 마리나, 해양레저도시 남구 건설,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공약번호: 4 공약 제목 :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한 ‘Safety 남구’

- 학교폭력, 남구에서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은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단순한 주먹다툼이 아니며, 학생들이 했다고 믿기에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 더욱이 학교폭력의 현실은 우리 어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에 학교폭력 및 왕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학생은 약 3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 또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교의 30% 내외에서 일진회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진 문화가 진학과정에서 되물림 되고 있습니다. 인근 학교와 네트워크를 맺고, 진학한뒤 또다른 일진회를 구성하는 등 확대 재생산 되고 있기도 합니다.

- 학교 폭력사태의 뿌리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 일진회와 담판을 지어야 합니다. 남구에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교내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와 주변인들의 협조 공조가 필요합니다.
- 학교주변지역, 학생들이 자주 몰리는 으스스한 골목에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경찰의 상시적인 관리를 지원하며, 학교 주변 주민이나 상인들이 경찰과 연락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공약번호: 5	공약 제목 :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Happy Dream 남구'
---------	---

○ 사각지대의 아이들이 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6세 이상 18세미만 아동은 약 110만명에 달하며, 남구만해도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센터 이용하는 아동은 각각 460명, 300명(2011년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 다른 친구들과 조금 환경에 있다고 해서, 꿈과 희망까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교육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각종 지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센터기관의 추가 설치 확대와 함께, 아동보육·복지교사의 지원과 확충, 지역사회의 자원과 협력?연계가 되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남구 출신의 아이들만큼은 큰 꿈을 키울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